

본당 모임 및 교육

본당 사목 단체 월례회	레지오 마리아 주회	본당 제단체 모임	구역 연락처(13구역)
사목회의 (마지막, 일) 3시 미사후	순교자들의모후 (화) 6:00 PM	성령기도회 (목) 미사후	총구역장 817-721-5050
재정회의 (셋째 화) 미사후	사랑의 샘 (화) 6:00 PM	울뜨레야 (둘째 일)	알랜, 맥키니 미정
전례회의 (마지막, 화) 미사후	십자가의 모후 (화) 6:00 PM	구리아 (셋째 일) 12:30 PM	캐롤튼 908-770-8694
구역장회의 (첫째 토) 3 PM	천사들의 모후 (일) 11:30 AM	벨기도 (2,3주일) 10시미사후	코펠 469-231-2002
성찬봉사회 (둘째 목) 미사후	신자들의 모후 (화) 5:30 PM	청년회 (토) 6 PM	N. 코펠 480-465-3853
성모회 (첫째 화) 미사후	평화의 모후 (토) 3:30 PM	교사회 (일) 9:15 AM	던컨빌 469-328-3831
학부모회 (셋째 일) 1 PM	자비의 모후 (토) 6:15 PM	쿨롬버스기사회 (넷째 일) 1:30 PM	갈랜드 972-795-9706
대건회, 70대 (넷째 일) 10시 미사후	황금궁전 (일) 11:30 AM	청소년 복사단 (첫째 일) 1:30 PM	얼빙 214-681-4225
하상회, 60대 (셋째 일) 10시 미사후	사도들의 모후 (일) 11:30 AM	복사단 자모회 (첫째 일) 1:30 PM	E. 프리스코 469-925-9343
이나시오회, 50대 (셋째 일) 10시 미사후	구세주의 모후 (일) 11:30 AM	연령회 (둘째 목) 미사후	W. 프리스코 469-831-6531
사도회, 40대 (넷째 일) 10시 미사후	하늘의 모후 (일) 11:30 AM	도서실운영회 (둘째 일) 2 PM	E. 플레노 미정
토마소회, 30대 (셋째 토) 4 PM	로사리오의 모후 (일) 11:30 AM	이나시오영성 (월, 수, 목) 8 PM	W. 플레노 972-544-8703
주일학교 & 청소년 (일) 10:00 AM - 11:15 AM	승리의 모후 (토) 3:30 PM	거룩한 독서 (화) 10 AM, Zoom	리차드슨 214-701-7688
한국학교 (토) 9:30 AM - 12:30 PM	즐거움의 샘(Jr.) (일) 9:00 AM	성경100주간 (수) 8 PM, Zoom	밸리랜치 214-664-0158
		성경100주간 (금) 8 PM Zoom	
		복자재속회 (셋째 일) 5 PM	

교우 업체 소개

<p><b>Smartec</b> 보안카메라/네트워크/오디오/비디오 설치, 수리 및 관리 전문 업체 우병태 라우렌시오 Tel 214-629-2663 info1@onesmartec.com</p>	<p><b>노바 덴탈</b> 김하운 소피아 Tel (817) 462-1022 1231 E. Pioneer Pkwy #101 Arlington, TX 76010</p>	<p><b>남마리아 부동산</b> 사업체/주택/상가리스 남현주 마리아 (972) 357-5535 Realtor.marynam@gmail.com</p>	<p><b>Celebration Co.</b> Wedding, First Communion, Baptism, Prom, Special Occasions 11818 Harry Hines #224 Dallas 972-243-2400 www.celebrationdallas.com MON-SAT 10:30-7</p>
<p><b>안나 케어</b> 간병보호, 동행, 메디케이드/서류/통역 469-206-0158 (PA 간병보호사 문의) www.annacaretx.com 은혜노인복지센터와 프로그램 협력</p>	<p><b>정관장 흡심</b> 달라스 직매점 캐롤튼 H 마트 후문 앞 (214) 483-3838</p>	<p><b>OK 에어컨</b> 대표 이정기 설치 및 수리 (주택/ 상업용) 214-796-3377, 469-774-3377 zzokac@gmail.com</p>	<p><b>E &amp; K Electric</b> *전기의 모든 것* 한정관 요셉 Tel 972-955-6156</p>
<p><b>살롱 드 아르떼</b> 미용실 (시온마켓 2층) 972-704-5639 앤디(베드로), 유리(카타리나) 현하(엘리사벳)</p>	<p><b>루시에어로빅스</b> Aerobics, K-pop Zumba, Pilates, Yoga 루시 김 : 972-795-9706 (오전반) 캐롤튼 2640 Old Denton Rd. #200 Carrollton (오후반) 달라스 한인 문화센터 11500 N Stemmons Fwy. #185 Dallas</p>	<p><b>한라산소주, 대선 화요, 좋은데이</b> 텍사스 총판 Tel 917-794-9684 min@eveenterprisellc.com</p>	<p><b>메디케어 보험</b>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플랜 은퇴연금, 롱텀케어, 생명보험상담 유니스 안 (수산나) Tel 469-777-2856 coverus21@gmail.com</p>
<p><b>조앤박부동산</b> 주택, 세입, 이주 정착 솔루션 서비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에이전트 Keller Williams, 박성아소화데레사 Realtorjoanne73@gmail.com (214) 770-6494</p>	<p><b>MDMartin</b> 스태핑, 컨설팅 MARK LEE 사이트 매니저먼트 Tel 214-991-5026 mark@mdmartinstaffing.com www.mdmartinstaffing.com</p>	<p><b>Shine Learning Center</b> CHRISTY LEE 미술   영어   수학   테스트 준비   스템 Carrollton Campus : 214-716-7913 Frisco Campus : 469-535-3333</p>	<p><b>홍신희중합치과</b> Midway Dental Fastbraces로 치아교정 3-12개월 (972) 241-6862 (972) 800-0448 (Cell) 13740 Midway Rd #506 Dallas, TX 75244</p>
<p><b>북나리 Book Nara</b> 캐롤튼 H마트 몰 7 days open Tel 972-245-2665 이건 "동천홍과 맛객 사이 북도 끝"</p>	<p><b>Texas Back Institute (TBI)</b> 정형외과 척추(어리, 경추)전문 Dr. 안준영 (Junyoung Ahn) 469-390-6600 info@texasback.com 500 W. Main St. #380 Lewisville, TX 75057</p>	<p><b>맑음 헤어살롱</b> Hair Salon Tel 972-693-6247 코마트 옆</p>	<p><b>앤드류정 부동산</b> 주택/뉴빌더홈 주거용토지/투자용부동산 Cell 214-663-8266 Ac.txrealtor@gmail.com 3370 Long Prairie Rd #650 Flower Mound, TX 75022</p>



달라스 성 김대건 성당  
ST. ANDREW KIM CATHOLIC CHURCH



2024년 3월 24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제 259907호

오늘의 전례

[입당송]

[제 1 독서] 이사야서 50,4-7

[화답송] 시편 22(21),8-9.17-18 7.19-20.23-24(27)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 2 독서] 필리피서 2,6-11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음] 마르코 14,1-15,47

[영성체송]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가	시작	봉헌	성체	파견
	10	491	496, 171	490

미사안내		
주일	토요일	5:00 PM 한국어
	일요일	10:00 AM 한국어
		12:00 PM 영 어
	3:00 PM 한국어	
평일	화·목	7:30 PM 한국어
	수·금	10:00 AM 한국어

성사안내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 전-고해실
유아세례	2,5,8,11월 첫째 토요일
혼인성사	사무실에 6개월 전에 신청
성 시간	매월 첫째 목요일 미사 후

성당정보	
주임신부	조재형 가브리엘
보좌신부	윤충훈 세례자요한
수녀	이체칠리아, 한베로니카 214-762-5794
사무실	972-620-9150
종신부제	이시훈 사도요한 214-668-2862
사목회장	한재민 야고보 214-475-0619
팩스	972-484-4628
주소	2111 Camino Lago Irving TX 75039

예비자교리	
일	11:00AM - 12:15 PM
성경 공부반	수 7:00 PM (남성반) 이 요한 부제
	수 11:00 AM 이 세실리아 수녀
	수 11:00 AM 박 비비안나
사무실 업무시간	일 9:00 AM - 6:00 PM
	월 휴무
	화·목 12:30 PM - 8:30 PM
	수·금 9:30 AM - 6:00 PM
토	10:00 AM - 6:30 PM

# 강론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제 생활을 하면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본당의 물품과 자기의 물품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성당에 있어야 할 사다리가 없어서 찾아보니 형제님이 자기 집 일에 쓰려고 잠시 가져갔다고 합니다. 전화해서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학교도 나오고, 말도 잘 하는데 셈이 좀 흐린 것이 늘 문제였습니다. 먹는 자리, 생색이 나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나타나는데 힘든 일, 봉사하는 자리에는 늘 이유가 있어서 빠지는 분이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늘 밝아서 좋긴 하지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본당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비난 받는 분도 있었습니다. 성당에서 신자라면 성당 밖에서도 신자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결과 속이 다른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큰 목소리로 비난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좋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분이 지나간 자리는 늘 한차례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뒷수습이 힘들었습니다. 술선수범하고, 추진력이 있어서 좋았는데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지나친 음주 때문에 공든 탑을 무너트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말도 없고 암전하고, 봉사도 잘 하는데 그만 술이 과하면 사람이 변하였습니다. 술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사람이 술을 위해서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제 생활을 하면서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제관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형제님이 자전거를 타고 성당으로 왔습니다. 성당의 문을 다 닫고, 하수구에 있던 오물을 다 꺼냈습니다. 그리고 성모상 앞에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3년이 지났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방앗간을 하면서 설날이나 추석이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떡을 드리는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형

제님이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면장님이 그 형제님을 위해서 표창장을 준다고 제게 연락해서 알았습니다. 말보다는 늘 먼저 봉사하던 형제님의 따뜻한 마음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큰 바위 얼굴처럼, 동네에 있던 커다란 느티나무처럼 언제나 본당을 지켜 주시던 어르신이 있습니다. 성탄에는 손수 새끼를 꼬아서 구유의 지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다녀 올 때면 잘 다녀왔는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르신의 집에는 늘 기도의 향내가 났습니다. 집 안의 중심에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하도 읽어서 낡고 낡아진 성경책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동네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앞장서서 힘을 보태는 형제님이 있습니다. 아픈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비자 인도를 많이 하셔서 대자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실천하는 분이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제가 사제 생활을 33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런 분들의 기도와 봉사 그리고 헌신과 열정 때문입니다.

예수님 수난의 길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배반은 절친했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것을 나누었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들입니다. 본당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단체의 간부들끼리도 없는 자리에서는 상대방의 흉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배반은 사제/ 수녀/ 평신도 모두에게서 나타나곤 합니다. 저는 교구에 있었기 때문에 때로 본당에서 '투서'를 보내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본당 신부님의 잘못을 지적하고, 본당 신부님을 비난하는 그 사람은 사실 본당 신부님과 늘 가까운 자리에 함께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그 유다와 비교해서 "나는 아니죠!"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종종 봅니다. 늘 모범생이었고, 남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고, 기도도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나는 주님이 힘들어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실 때, 어찌

면 늘 주님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 수난의 길에 예수님께 위로를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5처에는 시몬이 예수를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서를 읽어보면 길을 지나가는 키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우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십자가를 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본당 신부님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여행을 가게 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보좌신부는 본당 신부님이 하셔야 할 미사를 하게 되고, 여러 단체의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의무감으로 하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면 기쁜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의무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 제 6처는 성녀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의 얼굴 씻어 드림을 묵상합니다. 성서를 읽어보면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성녀 베로니카는 예수님께서 골고타 언덕으로 십자가를 기고 가실 때, 예수님의 얼굴에서 흘러 내리는 피땀을 닦아 준 예루살렘의 어느 부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으로 성면을 씻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 거기에 주님의 모습이 박혀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 여인은 베로니카로 알려졌는데, "베로"는 라틴어로 "베라"(참 진실한) 이고, "이까"는 "아이콘" 즉 성화상을 뜻하므로, 그녀의 이름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참 모습" 이란 뜻이 됩니다. 이 사건이후 그녀의 운명은 여러 가지로 서로 다른 전설로 전해옵니다.

주님 수난 성지주일입니다. 나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 위로를 드리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키레네 사람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베로니카 성녀처럼 주님의 얼굴에 흐르는 땀과 피를 닦아 드리면 좋겠습니다.

##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님

### 2024년 사목 목표

#### "친교의 공동체"

- 언제 어느 때나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떠르고,
- 성오경을 정성스럽게 하고,
- 매일 오후 3시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 적극 참여,

- 세례와 견진자 명단 (총 13명)  
얼빙 - 설민아 (올리아 빌리아르)  
N 코펠- 윤규노 (베드로), 박현주 (안젤라), 우민혁(안드레아)  
코펠- 심규민 (니콜라오)  
캐롤튼-김광현 (레오), 김찬우 (다니엘)  
김크리스티나 (이사벨), 최윤 (첼리나), 함미애 (파울라)  
E 프리스코- 강철준 (리카르도), 김지윤 (마리아)  
W 프리스코- 황덕삼 (사무엘)

- 견진자 명단  
N 코펠- 유지연 (루도비카)

- 3/26 (화)은 교구 사제들이 성유 축성 미사에 참여함으로 본당에는 저녁 미사가 없습니다.

- 주임신부님께서 4월1일(월)부터 13일(토)까지 성지순례를 떠나십니다.

## 공 지 사 항

● 성삼일 및 부활 미사 전례	
3/28 (목) 주님 만찬 성목요일	
오후 8시	미사, 발 씻김 예식
오후 9시	주님 수난 조배 시작
3/29 (금)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기도-전신자
오후 8시	주님 수난 예식
*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2차 헌금	
* 오전 10시 미사는 없습니다.	
3/30 (토)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오후 8시	부활 대축일 미사 와 세례식
* 부활 대축일 감사 헌금	
3/31 (일) 주님 부활 대축일 낮미사	
오전 11시	대축일 낮 미사
오후 3시	

- 엠마우스  
부활 후 4/2(화)부터 4/5 (금)까지 성당에 미사가 없으며, 사무실도 휴무입니다.
- 성주간 3/29일 금요일은 오전 10시 미사가 없습니다. (성주간 전례 참조)
- 주일학교, 유스그룹 부활축제-11시미사 후

- 제6회 청소년 음악회 (경연이 아닌 연주회)  
날짜 : 5/5 (일) 오후 5시 (접수는 사무실)  
대상 : 2th~12th 본당 청소년 (초보자 포함)  
부문 : 피아노,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성악  
모든 참가자에게 트로피와 격려 상품권 수여

주님 수난 조배 (성목요일 밤~금요일)	
밤 9-10 pm	성가대
10-11 pm	사목위원
11-12 am	E 플레노, W 플레노
0-1 am	E 프리스코, W 프리스코
1-2 am	얼빙
2-3 am	N 코펠
3-4 am	밸리랜치
4-5 am	코펠
5-6 am	캐롤튼
6-7 am	던컨빌
7-8 am	리차드슨
8-9 am	갈랜드

- 중남부 남성 제17차 꾸르실로 주말교육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날짜 : 2024년 5월 23일 (목)~26일 (일)
- 꾸르실로 기금 마련 부활절 바구니 판매  
날짜 : 3/30 (토) 오후 8시 미사 후  
3/31 (일) 11시 미사 후

건축헌금		교무금					
김현주 (600) 김원희 (300) 양영례 (40) Joseph Traylor Jr. (5)		엔젤 켈러 (2), 박준영, #36148, 김홍룡, 박정심, 이광현, 조수명, 이수경(2), 유만중, 김미옥, 양영례(2), 헤롤드 리, 정해현, 유동호, 정성문, 정우진, 윤종건, 김에스터, 김현주 Caleb J. Segura, 박피터, 장재호, 강젼마, 이희덕, 서윤교, 강경순, 지미 김, 김덕린					
		-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건축 계정	\$78,261.10	건축	\$945.00	교무금	\$5,560.00	주일 헌금	\$4,940.00
일반 계정	\$378,218.32			2차 헌금	\$212.00	주일 총액	\$11,657.00
지난주 평일 미사 참석자 수	화 50명 수 33명	목 50명 금 28명					
주일 미사 참석자 수	토 90명 10시 321명	12시 250명 3시 82명	주일 합계 743명				